

# 경제발전과 민주화

## ① 근대 ① 자본주의의 형성과 국가·제국주의

- 1차시. 근대 자본주의와 국가, 그리고 식민지
- 2차시. 서구 열강의 폭력으로 점철된 '대항해시대'
- 3차시. 산업혁명의 이면, 인도와 중국 경제의 붕괴
- 4차시. 제1·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한국
- 5차시. 1945년 이후에도 계속된 유럽의 식민지대
- 6차시. 유럽 경제성장의 이면, 식민지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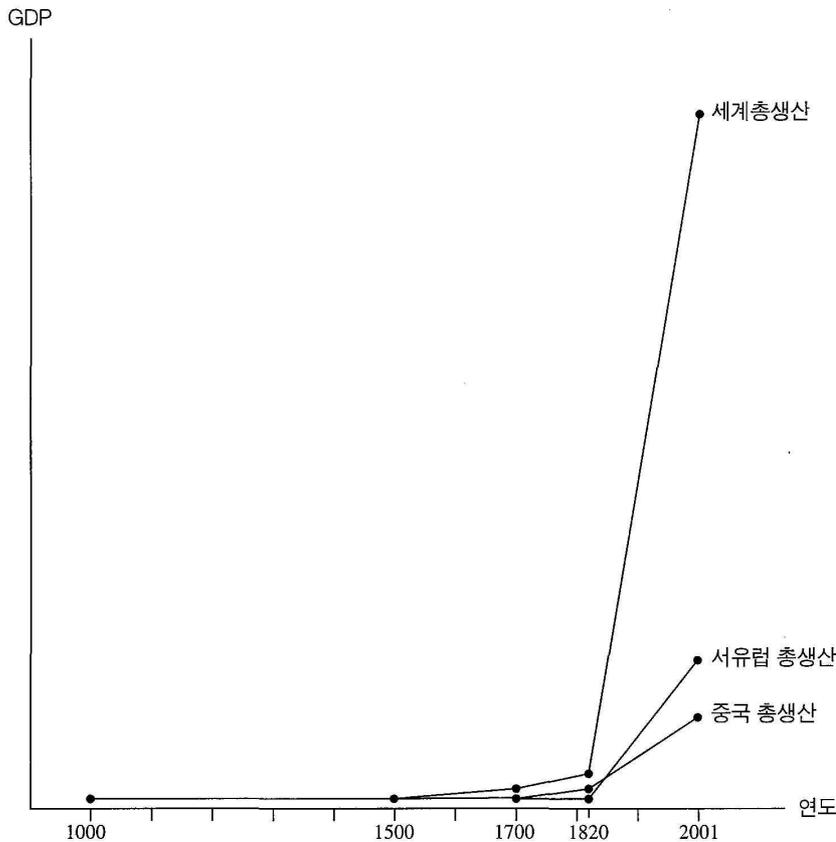
## 근대 ① 자본주의의 형성과 국가·제국주의

### 1. 자본의와 국가, 그리고 식민지

**학습 목표**

-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이 국가정책의 뒷받침, 식민지 침략과 불가분 관계를 가졌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자본주의의 세 주체(개인, 기업, 정부) 중 정부-국가의 역할이 자본주의 전개에 핵심 전제임을 분석할 수 있다.

#### 1.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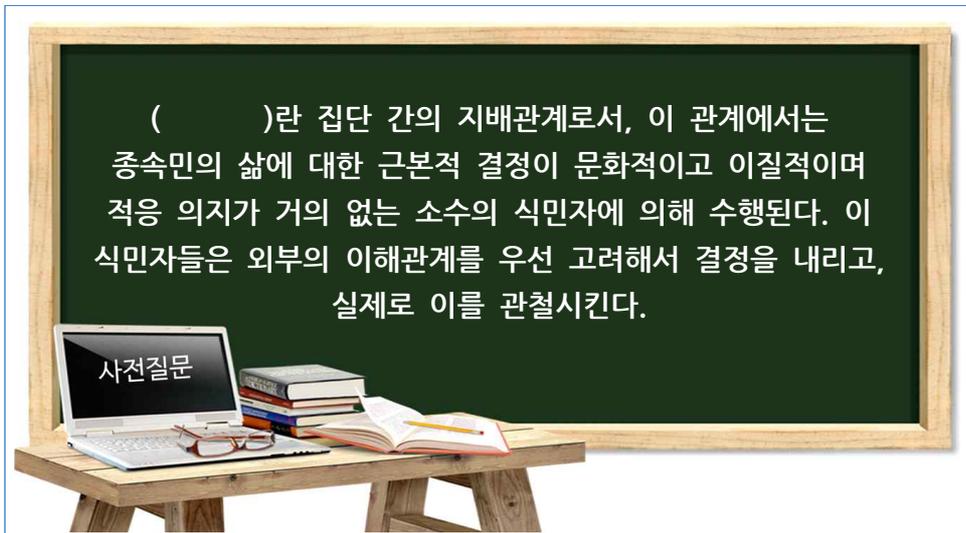
본 강좌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식민지 창출과 불가분의 관계였고, 유럽 자본주의가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의 뒷받침에 따른 식민지배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고찰합니다.

이 그림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물론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이만 주목하면 됩니다. 세계총생산(GWP), 즉 각 지역의 GDP 총합은 서기 1천 년까지는 대략 1천억 달러, 1,500년 2,500억 달러, 1700년 3,700억 달러, 1820년 7,0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8세기 중 100년 간 2배 증가했지만, 2001년에는 37조 2천억 달러로 53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1820년 중국과 인도의 GDP는 3,400억 달러로 GWP의 1/2이지만, 이후 서구가

중국과 인도를 역전합니다.

서구 경제의 급성장(take-off)은 '대항해시대'에 시작된 세계 시장 구축 과정에서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가 발흥하면서 '식민지'를 창출하는 '식민주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서구가 발흥하기 시작한 '대항해시대', 18~19세기 대영제국의 인도·중국 침탈, 양차대전기, 냉전 이후를 각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2. 준비하기



정답 ( 식민주의 )

## 3. 학습하기

### 1) 식민주의 형태 변화에 따른 4단계 시기

본 강좌는 세계자본주의체제를 구축하게 된 서구가 16세기부터 침략과 대살륙이 수반된 식민지 창출을 통해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룬 과정을 식민주의의 형태 변화에 따라 4개 시기로 구분합니다(오스터함멜의 6 시기 구분을 축소).

첫째, '대항해시대'(15세기~18세기 중엽)라 불리는 시대입니다. 유럽이 기존 아시아·아프리카의 분산된 무역로를 탈취해서 형성된 '무역 프로젝트'(인도양)와 '정복 프로젝트'(아메리카)를 결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1776, 아담 스미스).

둘째, '제국주의' 시대로, 산업혁명을 통해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자본화한 서구 자본이 자원공급처 및 판매시장으로서 식민지를 확장하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영제국의 인도·중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침략

을 들 수 있습니다. 상업회사이면서 국가권력을 대신한 동인도회사의 이중 역할을 통한 인도의 지배력 강화와, 아편전쟁(1839~1860)을 통한 중국(淸)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모두 해군이란 무력수단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홉스봄(Eric Hobsbawm)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를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서구 이중혁명의 시대라 칭했는데, 이 경우 이 개념은 물론 서구에만 해당되지요. 이후 ‘장기 19세기’의 끝자락(1875~1914)으로 ‘제국의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셋째, 서구 자본의 독점자본화 과정에서 나타난 ‘양차대전’기입니다. 서구 제국주의간 식민지 쟁탈전이었던 제1차·제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문제,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전국은 오스만 터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패전국 식민지나 속국을 우선 독립시켰지만, 승전국도 인도·캐나다 등지에서 그랬듯 병력의 부재에 따라 식민지 민을 군사력으로 활용하면서 정치적 「자치」를 허용한다는 허구의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대한제국기를 전후하여 ‘국민화’ 과정이 진행된 한국은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를 지나 3·1운동이라는 전국적 항일운동과 맞물려 일본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전승국이 되면서 식민지에 대한 산업 발달과 교육 보급이란 ‘개발’정책이라는 새로운 통치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의 권리는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시기’에 영국·프랑스 등 서구 열강은 쇠퇴한 와중에도 여전히 구식민지를 계속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정치적·경제적 지배를 할 능력을 잃으면서 1960년대에 이르면 많은 구식민지는 독립했지만 구식민모국의 경제적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소련은 제3세계로 일컬어진 구식민지 국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각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4. 요약하기

본 강좌에서는 도입부에서 제시한 서구 자본주의의 급성장-‘이륙(take-off)’은 서구 국가의 식민지 침략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민주의는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관계로, 소수의 식민자가 식민지에서 식민지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식민지를 ‘문명’화, 기독교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정당화를 강조하는 이념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서구 식민주의는 소위 ‘대항해시대’, 산업혁명기, 양차대전기, 냉전기로 시기구분 할 수 있습니다.

## 5. 출처

정태헌, 『평화를 향한 근대주의 해체』, 동북아역사재단, 2019, 1장.

홍종욱, 「3·1운동과 비식민화」, 한국역사연구회 편, 『3·1운동 100년』, Humanist, 2019.

에릭 홉스봄 지음, 정도영·차명수 옮김, 『혁명의 시대』, 한길사, 1998.

에릭 홉스봄 지음, 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한길사, 1998.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옥창준 옮김, 『냉전의 지구사』, 에코리브르, 2020, 4~5장.

위르겐 오스터함멜 지음, 박은영·이유재 옮김, 『식민주의』, 역사비평사, 2006.